

5장. 롯을 향한 보아스의 축복(2:4-23)

I. 오늘의 포인트

1. 보아스와 롯과의 대화를 알아본다.
2. 보아스가 롯에게 대하는 세심한 행동을 통하여 진정한 자비(헤세드)의 특징을 알아본다
3. 보아스의 행동을 전해들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알아본다.

II. 본 론

A. 보아스가 롯을 만나게 되는 장면

- 1) 롯이 이삭줍기를 하고 있을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왔다.(2:3-4)

‘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롯2:3-4a) ’

: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독자들은 느끼게 됨.

- 2) 보아스가 종에게 다정하게 안부와 축복을 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성품.(2:4)

‘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롯2:4)

: 종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할 때 보아스의 그 이름답게 아름다운 모습

: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

: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암시

- 3)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삭줍기 하는 젊은 여인에 대하여 물음과 종의 대답(2:5-7)

‘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롯2:5-7)

: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소속한 가족, 부족, 사는 곳을 물어보는 당시의 풍습. 즉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해함.

B. ‘하나님의 날개’아래 보호 받으러 온 롯으로 칭찬하는 보아스

- 1) 보아스의 **행동 속에** 담겨진 특별한 조치와 세심한 배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룻2:8-9)

: 계속해서 그 밭에서 이삭줍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함(먹고 살수 있도록!)

보리추수 때만이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나기까지 한참동안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룻 2:21-23)

: 여성으로서 젊은 일꾼들에게 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함(경제적인 문제로 성적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 하인이 길어온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도록.(거지 취급하지 않음)

2) 보아스의 **밭 속에** 담겨진 특별한 조치와 세심한 배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룻2:10-12)

: 롯이 은혜를 느끼며 감사를 표하자 더욱 큰 은혜를 **말로써** 주는 보아스

: 보아스는 자신의 관대함은 오히려 롯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관대함의 반응이라고 말해 줌

: 롯의 행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것**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보아스!(칭찬 중의 칭찬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

: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의 날개 아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시편36:7)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시편61: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시편91:4)

: 롯이 하나님의 날개아래 보호 받으러 온 것에 대한 그 응답이 일차적으로 보아스가 롯과

나오미의 날개가 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의 기도응답이 되는 삶)
: 보아스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만져 주었고 삶에 용기를 주었다고 고백하는 룯(마음을 만져주며 격려해 주는 말의 축복)

‘ 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룯2:13)

C. 믿음의 칭찬과 함께 세심한 자비의 선물을 베푸는 보아스

: 보아스가 현실의 필요와 함께 자존심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섬세한 배려

‘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룯2:14-16)

: 룯을 식사의 자리로 같이 초대함(한 구석에 앉히지 않고 식구로 대함)

: 보아스가 종들에게 특별히 곡식다발을 일부러 조금씩 버리라고 따로 부탁함
(룯의 자존심을 지켜 주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도와주려는 마음)

D. 보아스의 행위에 대한 나오미의 해석

1) 나오미의 질문 속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룯의 특별한 하루

‘ 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룯2:17-18)

: 이 정도의 양이면(한 에바: 22리터) 이것은 주운 것이 아니다.

: 점심 때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야영식량)도 보고 난 나오미의 질문

‘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룯2:19a)

2) 나오미의 영적인 깨달음과 축복의 예언

‘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룻2:20)

: 보아스는 우리 가족의 기업무를 자이다

: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함

III. 적 용

1. 보아스가 룯과 나오미의 날개가 되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응답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수는 없을까?
2. 누군가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칭찬은 무엇일까?
3.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나침반 바이블
BIBLE